

어린이책 들춰보기

우리아빠 홈런 I

박구홍 지음
정민 / A5신 / 242면 / 2800원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방영중인 동명의 TV드라마를 소설화한 것. '반달곰 팬더스'의 노장투수 박선동은 바로 이 책의 주인공 한길이의 아버지. 나이가 들어 구질이 점점 나빠지자 2군으로 밀린 아빠는 한길이가 갓 태어났을 무렵엔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로 이름을 날렸었다. 투수 아빠를 끔찍히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한길이는 언젠가는 아빠가 또다시 야구계를 주름잡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는 한 노장전수의 투혼도 감동적이지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싱그럽다.

예쁜 아이

김진식 지음
미리내 / A5신 / 126면 / 2500원

꽃보다 예쁘지요 / 우리 아가는 예쁜 말로 뽀족뽀족 / 피어나지요 꽃 속에서도 / 환한 얼굴 피어있어요 별처럼 빛나지요 / 우리 아가는 맑은 눈빛 곱게 곱게 / 반짝이지요 꿈 속에서도 / 눈을 뜨면 별이 되지요 (우리아가2 전문)
아동문학가이면서 「한국양복 100년사」란 이채로운 저서를 펴낸바 있는 시인의 두번째 동요시집. '예쁜 아이' '넘치지 않는 그릇' '옛날 호랑이' '우리의 소원' 등의 소재목들이 암시하듯 전통적이면서도 친근한 소재들을 정감있는 운율에 담아 노래했다.

물방울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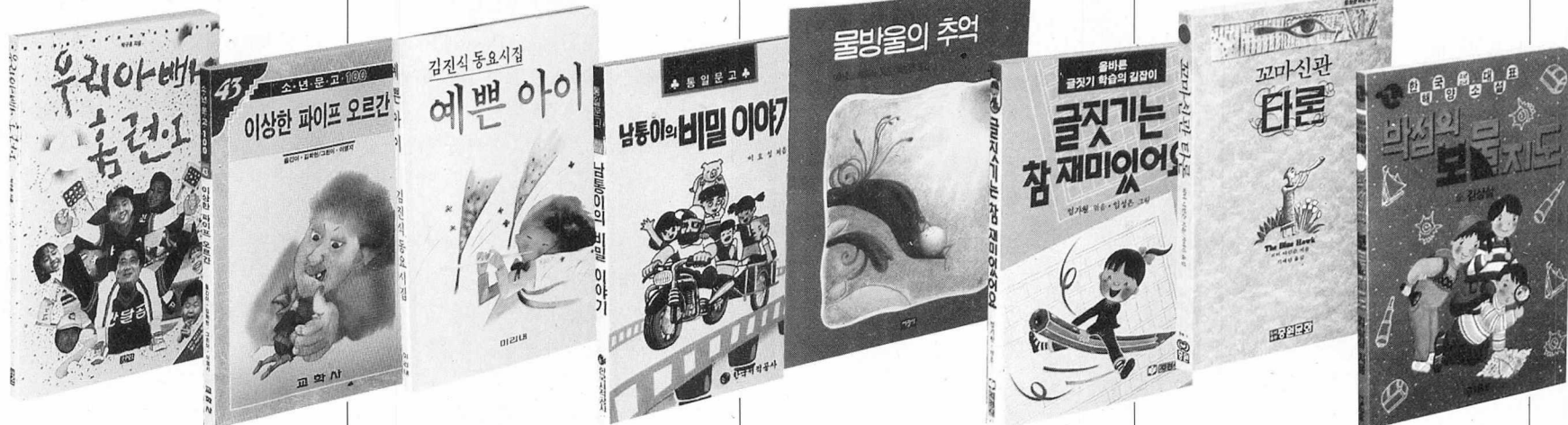
에덴느 드랄라 지음 / 채운경 옮김
서광사 / A5변형 / 36면 / 3000원

'쏘피아'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물방울이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며 적은 추억담. 숲속 조그만 웅덩이가 고향인 쏘피아는 어느 뜨거운 여름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 중간쯤에서 구름과 합류한 쏘피아는 소나기가 되어 강을 이루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 땀방울이 되기도 한다. 또 땅속에 스며들어 식물의 뿌리를 적시기도 하고, 세탁기에 들어가 빨래를 하기도 한다. 무심히 지나쳤던 물의 요긴함을 쏘피아를 통해 새롭게 느끼게 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꼬마신관 타론

피터 디킨슨 지음 / 기애란 옮김
중원문화 / A5신 / 304면 / 3800원

기원전 2000년 이집트를 배경으로 神官과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간의 권력투쟁을 담은 이야기. 영국의 추리소설가이자 SF소설가인 저자는 절대권력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고대사람들을 소재로 극대화되어가는 현대문명의 공포와 위기감에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환상적 기법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종교의 힘을 빌어 옹매 놓으려는 신관과 그 권력에 대항하여 수대에 걸쳐 싸워나가는 귀족들의 싸움이 흥미롭게 펼쳐져 있다.



이상한 파이프오르간

김학현 옮김 / 이영지 그림
교학사 / A5신 / 200면 / 2500원

마음이 못된 어떤 부자가 3만원의 돈을 잃어버린 일이 생겼다. 그러자 부자는 이 돈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많은 현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한다. 그런지 얼마안돼 정직한 한 농부가 돈주머니를 들고 찾아왔다. 부자는 갑자기 자기가 내건 현상금이 아까와 간교한 생각을 해낸다. 그 지갑속엔 24만원이 들어있었다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 착한 사람은 줄지에 도둑으로 몰린다. 하느수 없이 재판관에게 간 이 들은……. 지혜로운 판결로 억울함을 벗겨준 이야기 「어진 재판관」 외 5편의 옛날이야기가 실려 있다. 소년소녀문고 43권째.

남통이의 비밀이야기

이효성 지음
한국서적공사 / A5신 / 158면 / 2000원

남촌과 북촌으로 나뉘어져 앙숙처럼 살고 있던 한 고장이 개구장이 어린이들의 노력으로 화해하게 된다는 내용의 동화. 이 두 마을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뻗어 마주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선대때부터 천민과 양반으로 구분되어 살아왔던 까닭에 요즘에도 내왕이 없는 거북한 사이.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만나면 패싸움을 하기 일쑤다. 그러던 어느날 남통이는 북촌의 소녀 분이에게서 귀여운 돼지새끼 한마리를 몰래 선물받는다……. 조금은 황당하고 장난스럽게 전개되지만 어린이들에게 한 민족은 왜 둘일 수 없는지를 일깨워준다.

글짓기는 참 재미있어요

엄기원 엮음 / 임성은 그림
지경사 / A5신 / 238면 / 3000원

독후감이나 일기, 글짓기 숙제 등을 귀찮아하거나 힘겨워하는 어린이들에게 글쓰는 일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한편 즐겁게 글짓기에 임할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책. '글짓기는 왜 하나' '글을 잘 쓰려면' '생활속의 글' '일기와 편지' '기행문과 기록문' '독서와 독후감' '자기주장을 밝힌 글' '마음을 밝히는 글' '원고지 쓰기' 등의 장으로 구분하여 어린이들이 평소 궁금하게 여기는 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어린이 글짓기 기초지도에 요긴한 길잡이가 됨직하다.

박섬의 보물지도

김상삼 지음
윤성 / A5신 / 210면 / 2500원

바다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은 소년 대인이는 수평선 가까이에 깎아지른 듯 서있는 박섬을 보며 하염없는 추억에 잠긴다. '귀신섬'으로도 불리는 그 섬은 주변이 온통 절벽이어서 아무도 그 섬에 가본 적이 없다는 바위섬이다. 그러나 대인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늘상 그 박섬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라보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곳에는 거둬되는 의침으로부터 우리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조상들이 숨겨놓은 희귀한 지도가 있기 때문. 폭풍우 속 급류를 헤치고 보물지도를 찾아나서는 대인이와 그 친구들의 용감무쌍한 이야기.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지음/류재수 그림
산하/A5신/202면/2800원

글쓰기를 통한 올바른 인간교육에 40여년을 몸바쳐온 아동문학가 이오덕 씨가 책에서 읽을 수 없고 부모나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소중한 이야기를 26편의 편지글을 통해 조곤조곤 들려준다. 「비바람에 시달리는 꽃들」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공부」 「가짜 선생님, 진짜 선생님」 「잘못된 글짓기 공부」 등의 글에서 어른들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는 법,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와 내가족만의 울타리를 떠나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법 등을 일깨워준다.

철부지들의 풀빛노래

류근원 지음/김은정 그림
대교문화/A5신/240면/2800원

가난하고, 남들이 보기엔 어쩔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 환경에서도 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동혁, 바우, 다혜, 이 세 친구의 우정의 세계를 그린 장편동화. 어머니에 대한 비밀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하고 점점 거칠어지는 동혁이, 수물지구 보상금을 사기꾼에게 몽땅 날려버린 바우네, 폐암에 걸려 생명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남은 삶이나마 열심히 살려는 다혜... 철부지 같이 보이지만 옹골찬 이 세 친구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가며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감동을 자아낸다.

동몽선습과 계몽편

송명호 지음/오원경 그림
파랑새/A5신/224면/2500원

옛날 어린이들이 「천자문」을 읽고 나면 반드시 배워야 했던 교양필독서 「동몽선습과 계몽편」을 옛조상들의 일화를 곁들여 설명해놓음으로써 국민학교 저학년이 쉽게 익힐 수 있게 했다. '맹모 삼천지교, 맹모 단기지교'란 말을 남길 정도로 자녀교육에 성심을 다했던 맹자 어머니의 유명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의 5륜 효자 김상헌, 충신 윤행임 등의 예에서 빌어와 재미있고도 알기쉽게 설명해놓았다.

천지창조 이야기

에르네스토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
서광사/A5신/32면/3000원

저자가 어린 꼬마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듯 씩어진 이 세상 창조에 관한 동화. "하느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달이나 별,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 숱한 궁금증들을 갖고 사는 어린이들에게 그림과 재미있는 예로써 성서의 창세기편을 설명해준다. 어둠과 텅빈 곳에 맛있는 공기를 채워넣은 것이 바로 하늘이었고, 어둠을 견어내기 위해 크고작은 등불을 단 것이 별이 되었다는 등 하느님 생각에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하나씩 챙겨넣다보니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물고기를 울린 이야기

서정운 외 지음
책나무/A5신/278면/3500원

젊은 시인들이 쓴 재기발랄한 동화모음. 구광본씨의 「두루미를 본 적 있니」를 비롯해 서정운씨의 「나를 미워하는 나」, 원재길씨의 「물고기를 울린 이야기」, 하재봉씨의 「늘휘와 그림책」, 이문재씨의 「녹두의 나팔꽃」, 엄승희씨의 「내 친구 휘이」, 권태현씨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박덕규씨의 「호각」 등 28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엄마 뱃속에 든 태아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동화책 읽기를 환상의 여행에 비유하는 꼬마 등 천진하고 무구한 어린이들의 마음이 시인들의 섬세한 필치로 절묘하게 그려져 있다.

내가 누구예요?

황영애 지음
현암사/A5신/228면/3000원

우리나라는 세계제일의 고아수출국이란 불명예를 달고 있다. 이 책은 이같이 입양되어간 한국어린이들이 낯선 나라에서 자라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의 문제를 실제이야기를 바탕으로 씩어진 어린이소설이다.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어간 우리의 친구 제이슨, 이유를 알 수 없는 동양적 외모 때문에 미국아이들 속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과 수모, 어느날 우연히 알게 된 '코리아'란 나라에 대한 원망과 동경... 고민과 외로움 속에 방황하면서도 끈기있게 한국혼을 잃지 않고 커가는 제이슨의 감동적인 성장기.

월리를 찾아라

마틴 핸드포드 글·그림
대교문화/규외/32면/3000원

배낭과 침낭, 쌍안경과 카메라를 둘러메고 세계여행을 나선 월리. 이 책에는 여행자 월리가 찾아가는 바닷가, 스키장, 박물관, 도심의 거리 등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갖가지의 광경들이 재미있는 그림으로 묘사돼 있다. 지붕위로 달아난 강아지, 하수구에서 나오는 아저씨, 스키타는 거지, 신문 한 장을 함께 보는 다섯사람, 물뿌리는 어릿광대 등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월리 찾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내심과 집중력을 갖게하고, 세상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웃음을 선사한다. 영국월커북스에서 지난 87년 출간, 큰 인기를 끌었던 '월리' 시리즈의 첫책권.

기쁨으로 빛나는 나무

김정빈 지음/이승환 그림
도당/A5변형/126면/3000원

자신을 하잘것없는 존재라 여기며 깊이 외로움을 타는 나무가 있었다. 그는 티 한점없이 맑게 웃는 장미꽃을 보면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고, 투명한 하늘을 날오는 종달새를 보고도 초라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무는 볼품없이 생긴 부모도 없는 꼬마아이를 하나 알게 된다. 그러면서 둘은 자신들이 존재하는 의미,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우수한 것'과 '훌륭한 것'의 차이 등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사랑의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간다. 저자의 서정적이고 담백한 문체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깊은 깨우침을 가져다준다.